



'99 최은희 춤

99.10.1(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 네개의 바다
- 높은 바람
- 낮은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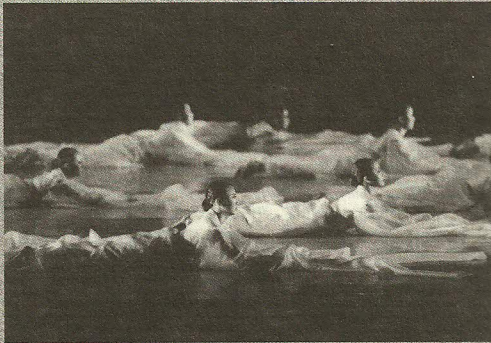
공연문의 : 예술공연기획 아툼 051-622-2244, 620-4964, 4960

※ 본 공연은 1999학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공연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공연됨.

네 개의 바다

음악 / Naoki Nishimure - space odyssey
 Shaman's Dream - breathing out
 Tulku - sacred circle 중에서 편집

바다의 숨쉬는 물결이 환경을 따라
 변화롭게 만들어 지는 파문의 이미지를 네개의 바다 -
 침묵의 바다, 평화의 바다, 걱정 of 바다, 어명의 바다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구상하면서
 인간내면의 감정적인 세계를 형상화한 것임.



높새바람

음악 : 김덕수 「명상」, 이광수 & Red Sun 「까지」
 Naoki Nishimura - space, odyssey 편집

태초에 땅과 하늘이 갈라져
 그 드넓은 간극은 서로를 외롭게 하였으니
 하늘은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땅을 덮어
 춤고 어두운 기운이 천지에 가득하였다.
 이 춤은 땅과 하늘을 이어
 합일의 조화로운 세계로 만들고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끊임없이 이어져가려는 인간의 회원을 담은
 신명스런 춤이다.

높새 바람부는 언덕,
 솟대가 솟아있는 정결한 땅에
 한 여인이 제단을 세우고 춤을 춘다.
 삶이란 높고 좁은 단 위에서
 한 발만 헛딛으면 떨어지는 춤과 같은 것.
 좁은 단위에서 춤처럼 인간은 아픈 삶속에서도
 그 순결한 정신의 일념을
 끝없이 땅에서 하늘로 보내고 있다.
 저 먼 미래까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끊임없이 걸어가 마침내 닿을 것이다.

최은희는 1955년 인천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79년부터 20여년간 개인 발표회 9회와
 각종 무용제 및 예술제 공연을
 통하여 40여편의 창작품을 형상화시켜
 무용가의 입지를 굳혀갔으며
 또한 지역문화계에 있어서
 무용의 위상을 높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83년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을 거쳐
 84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85년에는 부산에서 한국무용으로는 처음으로 순수 민간 무용동인단체인
 '춤패 배김새'를 창단케하여 각종 무용제 및 정기공연, 인접예술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무용의 소극장 운동을 활성화시켰으며,
 국내외 저명한 페스티벌, 서울무용제, 한국무용제전, 부산여름무용축제,
 전국무용제 등과 베를린, 북경, 길림성, 자카르타, 시드니 등의
 국제 페스티벌, 일본 대마도 아리랑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사절로 해외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94)로 지정된 이후
 96년부터 한국춤의 전통성과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무대양식을
 토착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춤레퍼토리라는 방법론으로
 98년, 9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홀춤' 기획과 공연을
 실현하고 있다.

최은희 춤의 특성은 어둠 속의 맑음, 즉 냉랭한 속에 정열을 지향하면서
 항상 주술성과 신비성을 저변에 두어
 토속적인 정서로 풀어내는 '풀이의 춤'으로서
 전통적 의식이 깔려있고 전통적 정형성을 해체하는
 원초적 무용언어에서의 출발을 시도하여
 보다 표현이 자유로움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작품>

넋들임, 계몽맞이, 매듭풀이, 현씨야미, 백방, 외출하다. 변신, 물맞이
 어두운 날들의 바람 그치고, 여인등신불, 파문, 영산회상불보살, 하얀배
 네개의 바다. 영혼의 변제, 태초의 공간에서 등 다수

- 안무 : 최은희
- 무대 : 권택삼
- 조명 : 신상준
- 음향 : 정정식
- 의상 : 김영곤, 김성만
- 미술 : 정진윤
- 지도 : 신은주, 홍이경
- 출연 : 신은주, 하연화, 홍이경, 손미란, 김민경, 박정은, 정경희, 채순희, 박성혜, 서우정, 이창규, 김현주, 김윤희, 남지원, 이정아, 장향민, 권수민, 김묘영, 정남선, 최의옥, 강경숙, 공지원, 김경미, 김미정, 권수민, 이정은, 송화영, 조은정, 채윤희, 최은희



넋들임

(제4회 대한민국무용제 대상 수상 작품)

작곡 / 홍 선 례

-새로와진 삶과 그대를 위해-

- 조혼의 장 -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의식.
- 그 감의 장 - 죽은 자와 살아있는들의 삶과 이별의 구조를 통한 참여확된 갈등
- 넋들임의 장 - 비로써 확실히 구획되는 생과 死의 입장. 당시금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새로운 넋의 들임.

무속의례 '진오귀굿'의 형식을 빌어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체험적인 인식논리를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구조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생에 대한 원형적인 이미지로 보고 그것을 무대위에서 그 형식과 내면적 인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형상화한 작품

차마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떠나 보내기 위해 만나려는
산타까운 부름
그 목소리 먼 먼 하늘에도
울렸구나 울렸구나

어느 곳에도 눈 떴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는
때묻듯 컷이 들은 이웃이며
어느 모퉁이 모퉁이마다인들
내눈길 닿지 않을 수 있을까
사끼고 쓰다듬던
자리, 내자리들
야, 떠나고 싶지 않구나.

어둠속에 서 있는 우리
서로 다듬어 어루만지는 손길이며
엉기고 엉켜 어수러졌네
저 가슴밑바닥부터 꿈틀거리며 뒤척이는
철움.....

새벽이 오는가
어디면곳에서부터
내내 어둠 헤치며 걸어오신 손님
푸시시 깨어나는 세상
새로워진 사랑

